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up>st</sup>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사무실 휴무 월, 목)

Website : www.stfranciscok.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Email : [stfrancisk.org@gmail.com](mailto:stfrancisk.org@gmail.com)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Fr. 김진열 가롤로(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carolokimofm@gmail.com](mailto:carolokimofm@gmail.com)

지도수녀 : 박순호 티모테아(투스 정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sb@gmail.com](mailto:seoulsb@gmail.com)

사목회장 : 이서원 마리로사 201.787.0879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mailto: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예레 31,31-34

[화답송] ..... 시편 51(50),3-4.12-13.14-15(◎12ㄱ)



- 하느님, 당신 자애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크신 자비로 저의 죄악을 없애 주소서. 제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제 잘못을 깨끗이 지워 주소서. ◎
-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제 안에 굳건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당신 앞에서 저를 내치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영을 제게서 거두지 마소서. ◎

[제2독서] ..... 히브 5,7-9

[복음환호송] ..... 요한 12,26 참조

- ◎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함께 있으리라. ◎

[복음] ..... 요한 12,20-33

[성가안내]

- 입당성가 [116] 주 예수 바라보라
- 봉헌성가 [511] 미약하온 우리 제물
- 성체성가 [497] 거룩하신 성사여
- 파견성가 [490] 십자가에 가까이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

<밑줄 부분에서 모두 고개를 깊이 숙인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 미사 봉헌

연미사	봉헌
전마사자 카타리나 김화자 소화테레사, 정인해 예로니모 강 마리아, 가장 불쌍한 연옥 영혼	김종화 필립보 가족 김영숙 카타리나 김경련 울리타
생미사	봉헌
심재우, 김셋별 (결혼 축하)	이경자 울리안나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3월 21일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완준 필립보	최진영 수산나	민완준 필립보	민덕미 안젤라
3월 28일	박기웅 사도요한	정은철 프란치스코	이경자 울리안나	이경자 울리안나	김지영 유스티나

**[미사 안내]**

1. **참석인원**은 선착순 **80명** 이내이며 일정은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까지 아래와 같습니다.

- 주일 미사 :  
토요일 4:00 pm

**일요일** 8:00 am, **9:15 am (한인공동체)**,  
11:00 am, 5:00 pm

- 평일 미사 :  
월 ~ 금 7:30 am, 12:00 noon, 5:00 pm  
토 11:00 am

2. 실시간 온라인 중계 :  
<https://stfrancis.org>

**[미사참석 시 지킬 수칙]**

- 마스크는 미사 시간 내내 착용합니다.
- 미사 중 손을 잡지 않으며,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합니다. (평화의 인사등)
- 봉헌 : 봉투 사용은 자제하여 주십시오.
- 영성체 : 영성체 전에 손 세정을 합니다.

**[사순시기 - 공동 보속]**

**매일 오후 3시, 주모경 1번 :**

사순시기 시작 첫날인 재의 수요일부터 사순시기 동안 우리 공동체에서는 투병중에 계신 모든분들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고통중에 계신 분들을 위하여 매일 오후 3시에, 각자 계신 장소에서 주모경 1번을 바치며 그분들과 함께 예수님 수난에 동참하는 거룩한 사순시기를 지내려 합니다.

- 십자가의 길 기도는 공동으로 하지 않습니다. 개인으로 바칩니다.
- 사순시기 동안에 받는 고백성사는 판공성사로 인정됩니다.
- 고백성사 : 1) 매주일 미사전 오전 8시 30분부터 8시 50분  
2) 평일에도 신부님과 미리 연락하시면 가능함.

**[줌(zoom) 활용한 온라인 사순특강]**

(홈페이지 참조 : [www.fec.or.kr](http://www.fec.or.kr))

- 일 시 : 2/23 - 3/23, 매주 화요일 밤 9:30 - 10:30 (뉴욕 시간)
- 유튜브로 중계되는 유료강의입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접속링크가 제공됩니다.
- 강의 시간에 맞추어 링크를 클릭(누르면)하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강의 일자, 주제와 강사(작은 형제회 소속)

일자	주 제	강 사
2/23	찬미와 권고의 삶	오상선 바오로 신부
3/2	우리는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 (루카 1, 54. 72)	정장표 레오 수사
3/9	팬데믹 시대의 그리스도인	기경호 프란치스코 신부
3/16	기도가 세상을 구할 것입니다.	박희전 루케치오 신부
3/23	팬데믹 시대의 형제애적 등불, 프란치스코 교황 회칙"모든형제들"	김일득 모세 신부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org](http://stfrancis.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 성 베네딕도의 규칙서 6장 -

## 침묵에 대하여

나는 말하기를, '내 길을 지키어 내 혀로 죄짓지 않으리라.

나는 내 입에다 피수꾼을 두었고,  
 병어리가 되어 낮추어졌으며,  
 좋은 일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았노라'고 하신  
 예언자의 말씀을 우리는 실행하자.  
 여기에서 예언자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는,  
 침묵의 덕을 (뉘기) 위해  
 때로는 좋은 담화도 하지 말아야 했다면  
 하물며 죄의 벌을 (피하기)위해서  
 나쁜 말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좋고, 거룩하고, 건설적인 담화일지라도  
 침묵의 중대성 때문에 완전한 제자들에게  
 말할 허락을 드물게 줄 것이다.

성서에 "너는 많은 말에서 죄를 피하지 못하리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다른 곳에는 "죽음과 삶이 혀에 달려 있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말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스승에게 적합한 일이고,  
 침묵하는 것과 듣는 것은 제자에게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만일 장상에게 여쭙어볼 일이 있으면  
 온전한 겸손과 존경에서 나오는  
 복종심을 가지고 여쭙어볼 것이다.  
 그러나 점잖지 못한 희롱이나,  
 한가한 말이나,

웃기는 말은 어느 곳에서나 절대로 금하며 단죄하고,  
 또 이러한 담화를 위해 제자들이 입을 여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 [2021년 3월 교황님의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 화해의 성사

우리가 화해 성사의 은총을 더욱 깊이 체험하여  
 하느님의 무한하신 자비를 맛볼 수 있도록 기도  
 합시다.

### [기도해주세요]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마태 25,45)

♡ 투병중에 계신 분에

김순한(루시아)	김옥지(아가다)
전마지(마가렛)	이재오(클레멘트)
김동희(헬레나)	이중환(T.아퀴나스)
이정주(소화데레사)	김용기(요셉)
정창동(폴리나)	고종호(마태오)
지군자(스테파니)	홍봉운(바오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정영도	노의선

## [미사 시간 변경 안내]

- 3월 28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 - 오전 9시
- 4월 4일 '예수 부활 대축일' - 오전 9시

### [공지]

다음 주일 성지 주일 제1, 2 독서자들은  
 오늘 미사 후 '수난 복음 낭독' 연습 있습니다.

주일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미사	(당분간 중단)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6:00
고해성사	주일 오전 8:30 ~ 8:50 지하 성당 고백실
혼인성사	당분간 중단
유아세례	당분간 중단
예비자 및 견진교리	기간 : 9월 시작 - 다음해 4월 주일 10:50am - 12:00pm, 클레어 룸

**사순제 5 주일 성경 묵상**

(예레 31,31-34/히브 5,7-9/요한 12,20-33)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밀안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뜻입니다.

새싹이 나오려면 먼저 씨앗이 죽어야 합니다.

씨앗이 죽는다고 해서 씨앗의 존재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씨앗과 새싹은 별개의 것이 아니기에, 씨앗의 형태가 새싹의 형태로 변화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새롭고 건실한 씨앗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평소 어떠한 준비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 깃든 악의 경향, 부정적인 마음,  
어둠과 죽음의 힘마저 죽여야 합니다.

그럴 때 생명의 힘, 선한 마음이 충만해질 것이 아닙니까?

개인적인 욕망을 물을 때,

비로소 하느님께서 쓰실 재목이 될 것입니다.

또한 죽음을 각오하고 전력을 다해 일할 때만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라야 한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인 우리가 당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한 알의 밀알이 되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밀알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 자아만 남아있을 뿐이다. 하지만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면 가장 완전한 예수님의 인격을 옷 입게 될 것입니다. 탐욕이 아니라 절제가, 이기심이 아니라 관대함이, 비열함이 아니라 고결함이, 잔인함이 아니라 온유함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될 것이다.

- 송봉모 “생명의 빛이 가슴 가득히” -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krishap@nestseekers.com  
(917)370-0394



뉴욕 맨하탄 NYC INTEGRATIVE ACUPUNCTURE  
**마음힐리언스 한방병원**



**마리아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646-808-7322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ATTORNEY AT LAW  
**STEVEN LOUROS**  
EXPERT IN PERSONAL INJURIES  
212-481-5275 (New York)  
718-423-0448 (Flushing)  
1261 BROADWAY SUITE 1100 NEW YORK  
SLOUROSESQ@YAHOO.COM

그리운.  
**miss KOREA**  
10 W 32ND STREET 1,2,3 FL, NY  
201-888-6765



23 W 32ND STREET, NEW YORK  
**212-695-5815**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1AM-11PM/ SUN: 12PM-9PM)

**더큰집**  
32 W 32ND STREET NEW YORK  
TEL. 212-564-8238

[단체모임 안내] : 추후 공지 때까지 중단합니다.

요셉회	2n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모회	2nd 주일 11:00am	교육관 4
연령회	2nd 주일 11:00am	Lower Church
꾸리아	3rd 주일 11:00am	Lower Church
울뜨레아	1st 주일 11:00am	교육관 4
양업회	3rd 주일 11:00am	Conf. Rm(2F)
성령기도회	매주 화 06:00pm-07:30pm	Conf. Rm(2F)
학부모회	1st 주일 11:00am	교육관 3
예수성가정회(FYMN)	4th 주일 11:00am	Francis Room